

# 일본의 식생활 교육 현황과 이슈\*

황운재

## 1. 식육기본법과 식육추진기본계획 수립

“식육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식육추진회의’가 내각부에 설치되었으며,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식육추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일본은 2005년 6월 ‘식육(食育)’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의 생활과 풍부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식육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식육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식육추진회의’가 내각부에 설치되었으며,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식육추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식육추진회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운동으로서의 식생활교육을 가능케 하였다. 2005년 10월 식육추진기본계획 검토회의(제1회 식육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2005년 9월과 10월에는 오사카현, 후쿠이현 오바마시, 이바라키현 등에서 지방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2006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3월 제 2회 식육추진회의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식육추진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식육추진시책의 기본방침, 9개 항목의 식육추진 목표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본 내용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운재 부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yjhwang@krei.re.kr, 02-3299-4247)

### 식육기본법의 개요

#### ■ 목적

- 국민이 건전한 심신과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기 위한 식육을 추진하기 위해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 ■ 관계자의 책무

- 식육의 추진에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교육관계자, 농림어업관계자, 식품관련사업자, 국민 등의 책무를 정한다.
- 정부는 매년 식육의 추진에 관해 강구한 시책에 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 식육추진기본계획의 작성

- 식육추진회의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식육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 식육 추진의 목표에 관한 사항
  - 국민 등이 행할 자발적인 식육추진 활동 등의 종합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도도부현은 도도부현식육추진계획, 시정촌은 시정촌식육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 기본시책의 내용

- 가정에서의 식육 추진
- 학교, 보육소 등에서의 식육 추진
- 지역에서의 식생활의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 식육추진운동의 전개
-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림어업의 활성화 등
-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등
- 식품의 안전성, 영양, 기타의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제공 및 국제 교류 추진

#### ■ 식육추진 회의

- 내각부에 식육추진 회의를 두어, 회장(내각총리대신) 및 위원(식육담당대신, 관계대신, 전문가) 25명 이내로 조직
-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추진회의, 시정촌에 시정촌식육추진회의를 둘 수 있다.

### 식육추진기본계획의 개요

#### ■ 식육추진정책의 기본방침

- 국민의 심신의 건강의 증진과 풍부한 인간 형성
- 식에 관한 감사의 마음과 이해
- 식육추진 운동의 전개
- 어린이에 대한 식육에서의 보호자, 교육관계자 등의 역할
- 식에 관한 체험 활동과 식육추진 활동의 실천
- 전통적인 식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산 등에 대한 배려 및 농산어촌 마을의 활성화
- 식료자급률의 향상에 대한 공헌
-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있어서의 식육의 역할

#### ■ 식육추진의 목표

- 식육에 관심을 갖는 국민비율(70%→90%)
- 조식을 결식하는 국민비율(어린이 4%→0%, 20대 남성 30%→15%)
-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역농식품을 사용하는 비율(21%→30%)
- <식사밸런스가이드>를 참고한 식생활 실천비율(60%)
- 내장지방증후군(메타볼릭신드롬)을 인지하는 국민 비율(80%)
- 식육추진에 관여하는 자원봉사자 수(20%증가)
- 교육농장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시정촌 비율(42%→60%)
- 식품안전에 관하여 기초지식을 가진 국민비율(60%)
- 식육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는 지자체의 비율(도도부현 100%, 시정촌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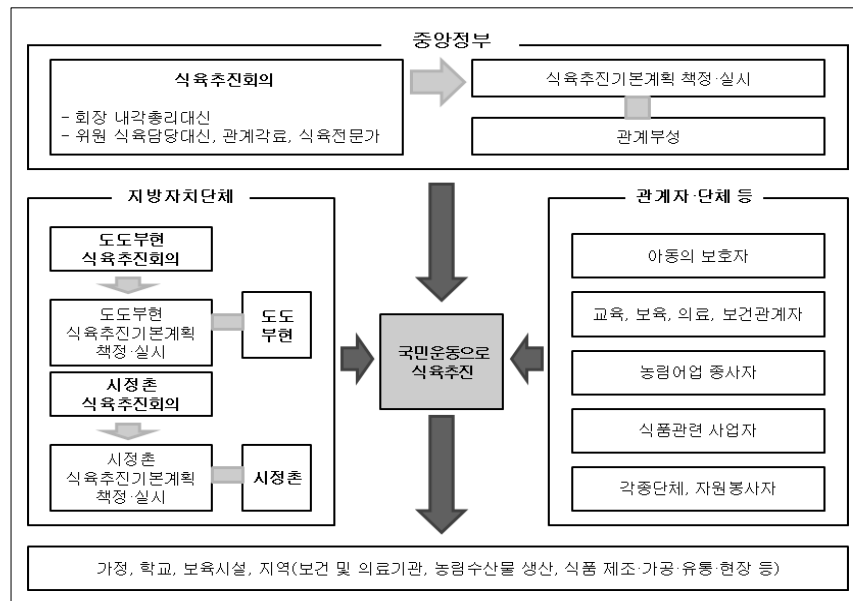
## 2. 국가 식육추진체계

일본의 식생활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민간 관계자·단체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중앙정부는 내각부에 설치된 ‘식육추진회의’에서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에서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시책을 추진한다. 내각부는 ‘식육추진회의’의 사무를 포함하여 식육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의 사무를 담당하고,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 부처와의 제휴를 통해 일관된 식육 추진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식육기본법”에 의해 지역에서 ‘식육추진회의’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식육추진회의’에서 수립된 해당지역의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수립·실시한다. 이밖에 지역의 민간단체 등이 별도로 다양한 식육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내각부에 설치된 ‘식육추진회의’에서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에서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시책을 추진한다.

그림 1 국가 식육추진체계



자료: 일본 식육백서(2006).

### 3. 중앙정부의 식육추진 현황

#### 부처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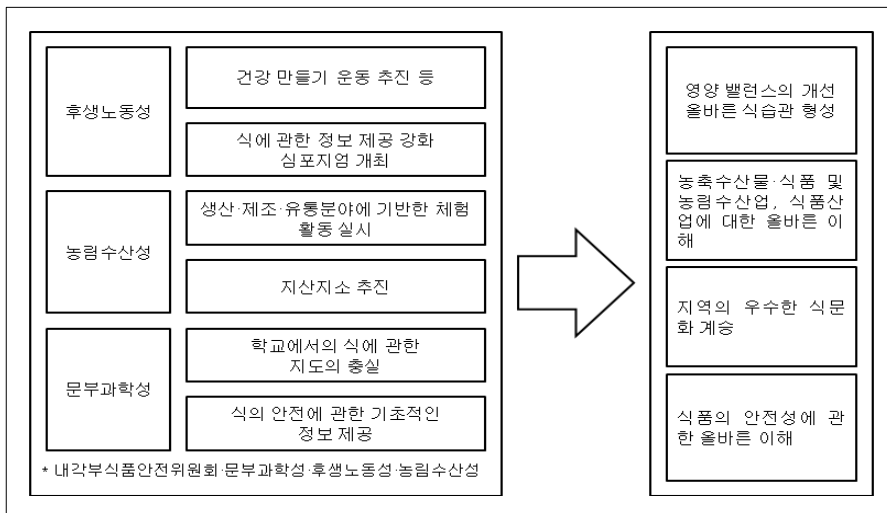
일본의 식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주로 식육의 목표·계획 수립, 식육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식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대국민 홍보활동 등에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식육은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등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앙부처는 부처의 특성에 따라 “식육기본법”에 제시된 1) 가정에서의 식육 추진, 2) 학교, 보육소에서의 식육 추진, 3) 지역에서의 식생활 개선 활동, 4) 식육추진 국민운동 전개, 5)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육 촉진, 환경과 조화가 되는 농림어업의 활성화, 6) 식생활 문화의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7) 식품 안전성, 영양 및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제공 및 국제교류와 관련된 시책을 전개한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식육 활동을 전개하고, 후생노동성은 국민 건강, 영양에 초점을 맞춘 식육, 농림수산업성은 건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농림어업과 식품산업과 연계한 식육을 중점으로 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교환을 중심으로 한 식육 활동을 전개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식육은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등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2 중앙정부 관계부처의 역할



자료: 내각부 홈페이지.

## 관련 예산

시책의 추진 예산은 2009년도 기준으로 사업별로 적게는 11백만엔(영양교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서 2,602백만엔(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개발, 교육농장 추진)에 달한다.

시책의 추진 예산은 2009년도 기준으로 사업별로 적게는 11백만엔(영양교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서 2,602백만엔(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개발, 교육농장 추진)에 달한다. 이밖에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내각부 식육추진실은 식육보급개발 151백만엔, 식육조사연구에는 47억엔을 책정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체험활동 추진사업 1,050백만엔, 영양교사를 핵심으로 한 식육추진 사업에 211백만엔, 식생활 학습교재의 작성·배포에 110백만엔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식료자급률 전략 홍보 추진 사업 1,700백만엔, 지산지소 추진 971백만엔, 농림어업에 관한 체험 활동 추진 816백만엔,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프로젝트’에 640백만엔을 배정하였다.

## 주요 활동

중앙정부의 식육활동은 주로 식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의 식육활동은 주로 식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은 식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식육월간(食育月間)’을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식육추진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제4회 대회는 시마네현에서 개최되어, 강연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의 관계중앙기관은 국민의 식육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서의 식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포스터, 리플릿, 각종 미디어 및 출판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육관련 시책을 홍보하고, 식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육관련 우수활동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표창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식육이 국민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내각부는 ‘식육추진자원봉사표창’을 도입하였으며, 총무성은 과소지역 자립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해 표창하였다. 문부과학성은 학교급식의 보급과 우수한 성과를 올린 학교, 공동조리장, 학교 급식관계자 및 학교급식 관계단체에 대해서 문부과학대신표창을 실시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영양개선 및 식생활개선사업의 보급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지구 조직 등에 대해서 영양관계공로자후생노동대신표창을 실시하였다. 농림수산성은 2003년 이후 전국의 식육활동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산업분야」, 「농림어업분야」, 「식육네트워크 분야」 등의 5개 분야에서 우수실천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표 1 부처별 식육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주무 부처	관련 시책	연도별 예산				
		2007	2008	2009	2007 결산	
내각부 식육추진실	식육보급개발등	136	162	151	47	
	식육조사연구등	47	44	47	28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119	120	100	111	
문부과학성	어린이 생활 리듬 향상 프로젝트	242	236	-	202	
	어린이 생활 습관 만들기 지원 사업	-	-	219	-	
	가정교육수첩 작성	170	65	25	184	
	영양교사를 핵심으로 한 학교·가정·지역의 제휴에 의한 식육추진사업	120	-	-	58	
	어린이의 건강을 기르는 종합식육추진사업	-	200	-	-	
	영양교사를 핵심으로 한 식육추진 사업	-	-	211	-	
	영양교사 육성 강습 사업	69	25	16	30	
	식육추진 교류 심포지엄 개최	14	14	14	13	
	영양교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연구 개발	11	10	11	0	
	아동학생의 생활습관과 건강에 관한 실천 조사 연구	24	-	-	10	
	향토요리등을 활용한 학교급식 정보화 추진 사업	-	20	18	-	
	학교에 있어서의 식육실천 사례집의 작성·배포	-	18	-	-	
	학교에서의 식육 추진과 이해 촉진을 위한 자료 작성·배포	-	-	19	-	
	「식에 관한 지도 안내」의 개정	-	-	32	-	
	식생활 학습 교재의 작성·배포	128	117	110	103	
	풍부한 체험 활동 추진 사업	713	1,012	1,050	518	
	학교급식에서의 지방산물의 활용 방안 조사 연구	-	40	47	-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13	9	15	12		
후생노동성	「건강한 부모와 자식 21」의 일환으로 모자보건활동 추진	11	11	16	11	
	국민 건강 만들기 운동의 추진 (「건강 일본 21」)	651	806	820	55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60	67	33	60	
농림수산성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활용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개발	3,804	2,634	2,602	3,779	
	「교육농장」의 추진					
	지산지소 추진	794	834	971	101	
	식료 자급율에 관한 정보제공	식료 자급율 전략 홍보 추진 사업	-	1,620	1,700	-
		세계 식량 수급 동향 등 조사·분석	-	109	181	-
	농림어업에 관한 체험 활동의 추진	980	864	816	477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대책 사업	-	-	640		
	식품 폐기물의 발생의 억제나 재이용 등 추진	2,976	2,965	333		
음식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 제공 등 추진	167	330	336	142		

자료: 식육백서(2008).

## 4. 부문별 주요 추진 현황

### 가정에서의 식육

가정에서의 식육은 생활리듬향상, 어린이 비만예방, 임산부와 유소아에 관한 영양 지도, 가정·지역에서의 영양교사를 핵심으로 한 활동,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식육 등에 초점이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식육은 생활리듬향상, 어린이 비만예방, 임산부와 유소아에 관한 영양 지도, 가정·지역에서의 영양교사를 핵심으로 한 활동,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식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민간주도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먹기’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유아,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식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정교육수첩’을 배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비만예방과 균형잡힌 식사를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요리체험, 영양지도, 소아 생활습관병 예방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유소아에 관한 영양 지도를 위해 ‘임산부를 위한 식사 밸런스 가이드’와 ‘임산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2006년 2월)을 작성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 진단이나 각종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로 종사자의 수유·이유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수유·이유 지원 가이드’(2007년 3월)를 보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영양사·영양사 등이 유아 대상 영양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역, 가정, 학교 등의 제휴에 의해 수유기·이유기부터 유아기 풍부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건강 부모와 자식 21’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의 바람직한 식생활의 실천을 위해 학교에서는 지역, 가정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영양교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한다. 보호자회 등을 통해 음식에 관한 지도, 급식 소식이나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 요리 교실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장이나 교직원 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지역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식육 보급·계발이나 영양교사에 의한 실천지도 소개 등을 실시하는 ‘식육추진교류심포지엄’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는 2008년부터 식사 등과 관련되는 규칙, 올바른 생활 습관 등이 청소년의 성장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식육에 임하고 있다. 내각부, 관계부처,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가 시행 주체가 된 2008년의 ‘전국 청소년 건전육성 강조 월간’에서는 실시요강의 하나로 ‘생활 습관의 재검토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 학교에서의 식육

학교에서의 식육은 지도 체제와 내용 확립, 충실한 학교급식 추진, 보육소에서의 식육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식육은 지도 체제와 내용 확립, 충실한 학교급식 추진, 보육소에서의 식육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식육은 학교급식시간과 함께 특별활동, 교과목, 종합학습시간 등 학교 교육활동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에서의 식육에서 영양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영양교사의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도 부터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 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강습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 영양교사의 경우 전문성을 살려 학급담임, 교과담임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식에 관한 교재를 작성하여 전국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배포하였다.

식육에 있어서 학교급식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학교급식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6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식육의 관점으로 학교 급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영양 등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이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양교사가 지역산물의 활용 등을 연구하여 지역의 식문화, 식관련산업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학교와 지역과의 제휴·협력 체계의 정비를 통해 학교급식에서의 지역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본 전통식생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주3회 이상을 목표로 쌀밥 위주의 급식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식문화 계승 메뉴 활용 촉진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학교급식 메뉴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향토 요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보육원에서의 활발한 식육 추진을 위해서 2009년 4월 1일에 ‘탁아소보육지침’에 식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탁아소보육지침’은 탁아소에서의 ‘식육’의 목표를 ‘건강한 생활의 기본으로서 식을 영위하는 힘의 육성을 위해 그 기초를 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보육계획에 식육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지역에서의 식육

지역에서의 식육은 주로 영양 밸런스가 우수한 ‘일본형 식생활’ 실천, 식생활 지침·식사밸런스가이드의 활용 촉진, 영양사, 조리사 등 식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활용, 건강을 위한 활동 추진,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식육, 식문화 계승 등을 내용으로 하여 추진된다.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 실천을 통해 식료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설명회,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부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은 식생활 개선, 건강 증진, 생활의 질 향상, 식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식생활지침’과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작성하고 설명회 개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에서는 식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영양사나 조리사 등을 양성하여, 관계단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인재 육성이나 식육추진 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건강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2000년 4월부터 ‘건강 일본 21’을 통해 장년기 사망

지역에서의 식육은 주로 영양 밸런스가 우수한 ‘일본형 식생활’ 실천, 식생활 지침·식사밸런스가이드의 활용 촉진, 영양사, 조리사 등 식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활용, 건강을 위한 활동 추진,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식육, 식문화 계승 등을 내용으로 하여 추진된다.



감소, 건강 수명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영양·식생활, 신체 활동·운동 등의 분야에서 질병예방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08년 ‘내장비만 증후군 예방 전략사업’을 통해 장년기 비만대책으로 ‘식사 밸런스 가이드’나 운동 시설을 활용한 체험기회 제공 등 민간과 제휴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및 시정촌 보건센터는 영양·운동 지도, ‘식생활 지침’과 ‘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보급 개발, 식생활 개선 추진원과 같은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자원봉사에 의한 자발적인 식육을 위해 식생활개선추진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식생활개선추진원은 지역에서 식생활 개선의 실천 방법, 식육의 보급 활동에 대한 리더 연수 실시, 지역 주민에 대한 식육에 관한 강습회 개최 등 식육 보급 계발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을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식육 활동 우량 사례 발표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내각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식육추진 자원봉사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식문화 계승활동으로는 지역의 식생활개선추진원 등의 자원봉사와 문화 활동, 행사·심포지엄 등의 개최 등이 있다. 식생활개선추진원은 일식생활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향토요리와 식생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부모자녀식육교실’을 통해 향토요리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민 문화제에서는 지역의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건강 일본 21 전국대회’에서는 향토요리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도농 교류·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농림어업의 활성화

일본은 그린투어리즘, 체험농원·시민농원 등을 통한 도농교류, 교육농장 등 농림어업종사자 등에 의한 체험 활동, 지산지소, 바이오매스 이용 및 식품 리사이클 등을 통해 도농교류·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농림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총무성은 과소지역 자립 활성화 우수사례를 표창하고, 지역간 교류시설 정비 보조금을 이용하여 식육 등의 관점에서 체험형태 교류시설을 정비하였다. 농림수산성은 2008년부터 총무성, 문부과학성과 제휴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숙박을 통해 농림어업을 체험하고 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어린이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 가공체험시설, 특산물·문화재 전시시설, 숙박시설과 도시주민과 농림어업자의 교류를 촉진하는 교류거점시설의 정비, 도시지역 체험농원이나 농산어촌 체재형태 시민농원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농장’의 보급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실시와 효과 측정, 교육농장 운영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과 교재 작성, 교육농장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일본은 그린투어리즘, 체험농원·시민농원 등을 통한 도농교류, 교육농장 등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체험 활동, 지산지소, 바이오매스 이용 및 식품 리사이클 등을 통해 도농교류·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농림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나 미디어 등을 통한 ‘교육농장’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중앙낙농회는 2001년 낙농교육농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낙농가 대상 연수회를 개최하고 실천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다. 이밖에 각 지역의 체험학습지도자나 초중학교의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과 체험학습시설 등 교류 기반시설의 정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산지소 활동을 위해 농림수산성은 직판시설이나 농산물가공시설 정비, 지산지소 추진지역 및 고령자나 소규모농가의 참여가 가능한 소량다품목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09년에는 전국지산지소추진협의회가 ‘전국지산지소추진포럼 2009’를 개최하여 농산물 직매소를 테마로 한 기초 강연이나, 우수사례에 대한 농림수산대신 표창 및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에서 지산지소에 관한 지식, 의견이나 경험을 보유한 ‘지산지소 사업인’ 선정, ‘지산지소 급식메뉴 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학교급식·사원식당, 외식·도시락 등에서 지역산 식품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이용하고 있는 우수한 지산지소 메뉴 선정이 이루어졌다.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축, 바이오 연료 이용이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의 실현과 보급을 위해 2009년 3월 ‘바이오매스타운 가속화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형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식품 리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강습회 개최, 리플렛 등 작성·배포, 식품관련사업자의 식품 리사이클 비료 등 평가·인증 체계 구축, 식품관련사업자·재생이용사업자·농업인에 의한 재생이용사업 계획의 인정과 관련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표창, 지역 리사이클시설 정비 등을 장려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가정에서의 식품 폐기나 음식물쓰레기 실태를 파악하는 ‘식품로스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식육추진에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는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가정에서의 식품폐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식과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공부회나 요리강습회 등을 통해 환경을 배려한 식생활의 보급·계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조사, 연구 및 기타 시책 추진

일본은 다양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원활한 식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돕기 위해 식품정보에 관한 제도를 보급·개발하고, 외국과의 식육관련 정보교류 활동을 전개하며, 개발도상국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인 식사섭취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이의 보급을 위해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의 구축, 바이오 연료 이용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돕기 위해 식품정보에 관한 제도를 보급·개발하며, 외국과의 식육관련 정보교류 활동을 전개하며, 개발도상국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위해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주요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식품소매업의 식의 안전·안심시스템의 도입 현황, 가정·지역에서의 식품손실 실태 등 식육추진을 위해 필요한 농림어업 및 식료에 관한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표시의 적정화, 표시제도의 보급·정착을 위해 2002년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복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표시제도의 공통표시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며,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알레르기 표시제도,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 등에 대해 검토·수정하였다. 또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Japan Agriculture Standard)상에 원료공급자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였다(2008년 4월 시행).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식품의 생산이력정보를 인터넷이나 팩스 등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생산정보공표 JAS규격을 쇠고기, 돼지고기, 농산물, 가공식품(두부·곤약), 양식어류 등에 대해 도입하였다.

국제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2009년 ‘세계요리서밋 2009 TOKYO TASTE’를 개최하여 조리 기술·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국립 건강·영양연구소는 아시아 각국의 젊은 연구자를 초빙하여 식육에 관한 연수 및 공동 연구 등을 시행하였다. 외무성은 해외 홍보활동에 식육관련 토픽을 포함시켜 일본의 식문화나 식육 활동을 소개하였다. 2006년에는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의 공동사업으로 ‘WASHOKU —Try Japan’s Good Food’ 사업을 시작하여, 재외공관에서 일식문화 보급과 일본 농림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각국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일본산 식품재료를 이용한 일식을 제공하였으며, 재외공관이나 국제교류기금 해외사무소 등이 요리실습회 등을 통해 일식문화를 소개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식생활 개선과 빈곤 농민 지원을 위해 국가간 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관을 통해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나 행정관을 대상으로 식품관련 기술과 위생·영양분야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국제영양사회의(ICD2008)를 요코하마에서 개최하여 식육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국제 기구나 영양 부족의 문제에 관한 홍보의 일환으로 FAO의 역할과 아프리카의 기아 박멸과 농업·농촌 진흥 등을 테마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 5. 시사점

일본의 식생활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식생활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하여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적이고 활발한 식생활 교육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식육추진과 관련된 자원봉사자 수가 2006년

국제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2009년 ‘세계요리서밋 2009 TOKYO TASTE’를 개최하여 조리 기술·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국립 건강·영양연구소는 아시아 각국의 젊은 연구자를 초빙하여 식육에 관한 연수 및 공동 연구 등을 시행하였다.

첫째, 일본의 식생활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국민운동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28만명에서 2007년에는 3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부처별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가 식육 관련 사항의 종합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여 부처간 연계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일본은 보다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농림어업체험과 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농산어촌 숙박 프로그램인 ‘어린이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농장을 설립·보급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식생활 교육에 있어서 영양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밖에도 전통적인 식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산 등에 대한 배려 및 농산어촌 마을의 활성화 등을 식육추진시책의 기본 방침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참고자료

일본 내각부 식육백서(食育白書). 각연도.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cao.go.jp>).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부처별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보다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식생활 교육에 있어서 영양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